

[11] 6월

초 1일(갑신) 아침에 탐후선(探候船)이 들어왔다. 어머니 편지를 보니 평안하시다 한다. 다행 다행이다. 아들의 편지와 조카 봉()의 편지도 한꺼번에 왔는데 명나라 관원 양보(楊甫)가 왜물(倭物)을 보고 아주 좋아하면서 말안장 하나를 가지고 가더라고 한다. 순천과 광양이 보러 왔었다. 탐후선이 왜물을 가져 왔다. 충청 수사 정영공(丁令公 * 결(傑))이 오고 나대용(羅大用) 김인문(金仁問) 방응원(方應元) 및 조카 봉도 왔다. 그 편에 어머니가 안녕하시단 기별을 들었다. 다행 다행이다. 충청 수사와 함께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저녁밥까지 대접했다. 황정옥(黃廷玉)과 이영(李瑛)이 강가에 나가서 함께 이야기하더라고 하니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 날은 맑았다.

초 2일(을유) 맑음. 아침에 본영의 공문을 처결하여 보냈다. 온양(溫陽)이 강용수(姜龍壽)가 진중에 이르러 명함을 들여보내고는 먼저 경상도 본영으로 갔다. 판옥선(板屋船)과 군관 송두남(宋斗男) 이경조(李景祚) 정사립(鄭思立)들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아침 후에 순찰사 군관이 공문을 가지고 와서 적의 정세를 물어 가지고 가려는데 우수사와 상의해서 대답해 보냈다. 강용수가 또 왔기에 양식 5말을 주어 보냈다. 원건(元)이 함께 왔더라고 한다. 정영공이 내배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가리포(加里浦)의 구우경(具虞卿 * 사직(思稷))도 와서 함께 이야기 하였다. 저녁에 송아지를 잡아서 갈라 먹었다.

초 3일(병술) 새벽에 맑더니 늦게는 큰비가 왔다. 지휘선을 연기로 그슬리기 위하여 댄 배로 옮겨 탔다. 막 활을 쏘려는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온 배에 비가 새지 않는 곳이 없어 마른 데를 골라 앉을 수가 없으므로 한심스러웠다. 평산포(平山浦) 만호(* 김축(金軸)) 소비포(所非浦) 권관(* 이영남(李英男)) 방답(防踏) 첨사(* 이순신(李純信))가 함께 보러 왔었다. 저물게 순찰사(巡察使 * 권율(權慄)) 순변사(巡邊使 * 이빈(李賓)) 병사(兵使 * 선거이(宣居怡)) 방어사(防禦使 * 이복남(李福男))들의 답장이 왔는데 딱한 사정이 많았다. 각도의 군사가 많아야 5천명이 넘지 못하고 또 약식도 거의 떨어져 간다고 했다. 적도들이 발악이 날로 더해가는데 일은 모두 이렇게 되니 어찌하랴. 어찌하랴. 밤이 들기전에 지휘선으로 돌아와서 침방으로 들어갔다. 비가 밤새도록 왔다.

초 4일(정해) 비. 비. 온종일 밤새도록 비가 왔다. 식전에 순천(* 부사 권준(權俊))이 왔다. 식후에는 충청 수사 정영공(令公 * 결(傑))과 이홍명(李弘明)과 광양(* 현감 어영담(魚泳潭))이 와서 종일토록 군사 일을 이야기하였다.

초 5일(무자) 비. 비. 종일 비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배 밖으로 머리를 내밀기 어려웠다. 오후에 우수사(* 이억기)가 와서 해 진뒤에 돌아갔다. 저물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는데 풍세가 몹시 사나와서 배들을 겨우 구해 냈다. 이홍명이 왔다가 저녁밥을 먹고 돌아갔다. 경상도 수사(* 원균)가 웅천(熊川)의 적이 감동포(甘同浦)로 들어 올지도 모른다면서 들어가 치자고 공문을 보냈다 하니 그 흥계가 우습다.

초 6일(가축) 개었다. 비오다 하였다. 순천이 보러 왔었다. 보성(* 군수 김득광(金得光))이 갈려 가조 그 자리에 김의검(金義儉)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충청 수사가 와서 함께 이야기 하였다. 이홍명도 오고 방답도 왔다가 곧 돌아갔다. 저녁에 본영 탐후인(探候人)이 왔는데 어머니가 안녕하시다고 했다. 또 흥양(興陽)서 오는 말이 낙안(樂安)에 와서 죽었다 하니 참 가없다.

초 7일(경인)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순천과 광양이 오고 우수사와 충청 수사도 오고 이홍명도 와서 함께 종일 이야기 하였다. 본도 우수사 우후(右水虞侯 * 이정충(李廷忠))가 저녁에 보러 와서 서울안 소식을 낱낱이 전하였다. 가중하고 한탄스럽기 짝이 없었다.

초 8일(신묘) 잠깐 맑더니 바람이 순하지 못하였다. 경상도 수사의 우후(虞侯 * 이의득(李義得))가 군관을 시키어 생전복을 선사하였기에 구슬 30개를 대신 보내 주었다. 나대용(羅大用 * 공의군관)이 병으로 본영에 돌아갔다. 병선(兵船) 진무(鎭無) 유충서(柳忠恕)도 병으로 사임하고 육지로 올라갔다. 광양이 오고 소비포도 왔다. 광양이 쇠고기를 내와서 함께 먹었다. 탐후선이 들어왔다. 각 고을 담당 아전 11명을 처벌했다. 옥과(玉果) 향소(鄕所)에서 지난 해부터 수군 압령해 보내는 사무를 성실히 보지 않아서 도피자의 수가 거의 백여명인데 그나마 매양 거짓말로 꾸며 대 왔기 때문에 이날 목을 베어서 일반에게 보이었다. 모진 바람은 그치지 않고 마음속도 산란하였다.

초 9일(임진) 맑음. 지리하던 비가 처음으로 개니 온 군중 장병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순천과 광양이 와서 개장을 처음 놓는다. 심기가 불편하여 종일 배속에 누워있었다.

서류가 접수한데 대한 접반관(接伴官)이 확인서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독(提督 * 여송(如松))이 도로 충주(忠州)로 왔다는 말을 들었다. 본군 의병(義兵) 성응지(成應祉)가 돌아올때 본영의 군량미 50섬을 실어 왔다.

초 10일(계사) 맑음. 우수사(*이억기)와 가리포(加里浦 * 구사직(具思稷))가 와서 군사에 대한 계책을 자세히 논의했다. 순천도 왔다. 삿자리 20냥을 짚다. 저녁에 영등포(*거제도 장목면 구영리)정찰 부대가 와서 보고하되 웅천의 적선 4척이 저희 본토로 돌아갔고 또 김해 바다로 돌아가고 그 나머지는 부산으로 향하였다고 한다. 새벽 2시쯤에 원수사(원균)의 공문이 왔는데 [내일 새벽에 나가 적을 치자]는 것이었다. 그의 시기와 흥모는 형언할 길이 없다. 이날 밤에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네 고을 군량에 대한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11일(갑오) 비가 오락가락하였다. 아침에 왜적 토벌한 공문을 만들어서 영남 수사(*원균)에게 보냈더니 술이 취하여 정신이 없다고 핑계하면서 회답하지 않았다. 낮 12시쯤에 충청 수사(*정걸(丁傑))의 배로 갔으나 충청 수사는 내 배에 와서 앉아있었기로 잠깐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그 길로 우수사와 배로 간즉 가리포(加里浦) 진도(珍島 * 김만수(金萬壽)) 해남(海南 * 위대기(大器))들이 우수사와 함께 술자리를 차려 놓고 앉아 있다가 나도 두어잔 마시고 돌아왔다. 탐후인(探候人)이 와서 고목(告目)을 바치고 갔다.

12일(을미) 비가 오다 말다 했다. 아침에 흰머리털 여남은 오라기를 뽑았다. 흰 머리털인들이 무엇이 어떠라마는 다만 위로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었다. 종일 혼자 앉아 있었다. 사랑(蛇梁 * 이어념(李汝恬))이 다녀갔다. 밤 10시쯤 변존서(卞存緒)와 김양간(金良幹)이 들어왔다. 행궁(行宮)의 기별을 들은즉, 동궁(東宮 * 광해)께 편찮으시다고 하니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유정승(*성룡(成龍))의 편지와 윤지사(*우신)의 편지가 왔다. 종 갖동(同)과 철매(哲每)들이 병으로 죽었다니 참 가엾다. 해당(海棠)이란 중도 왔다. 밤에 원수사의 군관이 와서 명나라 군인 5명이 들어왔다고 전하고 갔다.

13일(병신) 맑음. 늦게 잠깐 비가 오다가 그쳤다. 명나라 사람 왕경(王敬)과 이요(李堯)가 와서 우리 수군의 형세가 얼마만한 것을 보고 갔다. 그들에게서 이제독(*여송)이 진격 토벌하지 않아 명나라 조정에서 문책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조용히 이야기하는 중에 감개되는 점이 많았다. 저녁에 진을 거제 세포(細浦 * 사등면 성포리)로 옮기고 거기서 머물렀다.

14일(정유)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아침 후에 낙안(樂安 * 신호(申浩))이 보러 왔었다. 순천, 광양도 왔었다. 광양이 노루고기를 차려 내왔다. 전운사(轉運使) 박충간(朴忠侃)의 공문과 편지가 왔다. 경상 좌수사의 공문과 동도 우수사의 공문이 왔다. 저물게 비바람이 크게 치더니 얼마뒤에 그쳤다.

15일(무술)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우수사(*이억기) 충청수사(*정걸) 순천(*권준) 낙안(*신호) 방담(*이순신(李純信))들을 청해다가 함께 햇과일을 먹고 놀다가 날이 저물어서 헤어졌다.

16일(기해) 잠깐 비가 왔다. 늦게 낙안(樂安) 원을 통하여 진해(鎭海) 고목(告目)을 얻어 본즉, 함안(咸安)에 있는 각도 대장들은 왜놈들이 황산동(*양산군)에 나가 진쳤다고 소문을 듣고 모두 물러나 진양(*진주시) 의령을 지킨다고 하니 참으로 놀랄일이다. 순천, 광양, 낙안들로 왔다. 초저녁에 명등 정찰군이 아서 아뢰되 [김해 부산에 있던 적선 무려 5백여척이 안골포(安骨浦 * 창원군 웅동면) 웅포(*창원군 웅천면) 제포(濟浦)등지로 들어 왔다]고 하였다.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으나 적도들이 합세하여 다른 지경을 침범할 계획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우수사(*이억기)와 정수사(*걸)에서 공문을 보냈다. 밤 10시쯤에 대금산(大金山 * 거제도 장목면) 정찰군이 와서 보고하는 것도 역시 같은 내용이라 송희립(宋希立)을 경상 우수사(*원균)에게로 보내어 의논한 즉, 내일 새벽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적의 꾀란 참 측량할 길이 없었다.

17일(경자) 혹은 비가 오다 혹은 개다 하였다. 이른 아침에 원수사, 우수사(*이억기)와 정수사(*걸)들이 와서 의논했는데 함안에 있던 여러 장수들이 진주로 물러가 지킨다는 말이 과연 사실이였다. 식후에 이경수 영공(*이억기)의 배로 가서 종일 이야기하였다. 조봉(趙鵬)이 이창원(昌原)에서 와서 적의 형세가 아주 대단하더라고 전했다.

18일(신축) 흑 비도 오고 흑 개기도 하였다. 아침에 탐후선이 들어왔다. 닷새 만에야 들어왔으니 아주 옳지 않은 일이라 곤장을 때리어 보냈다. 오후에 경상 우수사(*원균)에 배에 가서 같이 앉아서 군사일을 의논하였다. 연거푸 한잔 한잔 마신것이 몹시 취해서 돌아왔다.

부안(扶安)의 용인(龍仁)이 와서 그 모친이 갇혔다고 놓여 나왔다고 말했다.

19일(임인) 흑 비도 오고 개기도 하였다. 바람조차 세게 불며 그치지 않으므로 진을 오양역(烏楊驛 * 거제도 사등면 오량리)앞으로 옮겼으나 바람에 배를 안정시킬 수 없어서 다시 고성 역포(固城亦浦 * 지금 통영군 용남면)로 옮겼다. 봉()과 변유헌(卞有憲) 두 조카를 본영으로 보내어 어머니의 안부를 알고 오게 하였다. 왜물(倭物) 명나라 장수가 선사한 물건을 기름 등속을 본영으로 실어 보냈다.

20일(계묘) 흐리고 바람조차 세게 불었다. 조상의 제삿날이 되어서 종일 혼자 앉았다. 저녁때 방담, 순천, 광양이 보러 왔었다. 조봉이 그 조카 응도(應道)와 함께 보러 왔었다. 이날 배만들 재목을 운반해오고 그대로 역포(亦浦)에서 왔다. 밤에는 바람도 잤다.

21일(갑진) 맑음. 새벽에 진을 한산도(閑山島)의 망하응포(望何應浦)로 옮겼다. 점심때 원연(元)이 왔었다. 우수사를 청해서 함께 앉아 술을 몇잔 마시고 헤어졌다. 아침에 아들 회()가 들어왔다. 그래서 어머니가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이니 다행이다.

22일(을사) 맑음. 처음으로 전선(戰船)을 만들기 위하여 자귀질을 시작했다. 목수 2백 14명이 일을 하였다. 본영에서 72명, 방담에서 35명, 사도에서 25명, 녹도에서 15명, 발포에서 12명, 여도에서 15명, 순천에서 10명, 낙안에서 5명, 흥양과 보성에서 각 10명이었다. 방담에서 처음에는 15명밖에 보내지 않아서 담당한 군관과 아전을 처벌하였는데 그 정상이 아주 간교하였다. 지휘선의 제2호선 급수군 손걸(孫乞)을 본영으로 돌려 보냈던 바, 못된 짓을 많이하고 돌아다니다가 잡혔다기에 붙잡아 오라고 하였더니 이미 버젓이 들어와 인사를 하는 것이므로 제 마음대로 드나든 죄를 다스리고, 그와 함께 우후(虞候)의 군관 유경남(柳景男)도 처벌하였다. 오후에 가리포(加里浦)가 왔다. 적량(赤梁)의 고여우(高汝友)와 이효가(李孝可)도 왔다. 저녁때 소비포 이영남이 다녀갔다. 초저녁에 영등(永登) 정찰부대가 와서 보고하되 [별다른 일은 없고 다만 적선 2척이 온천(溫川 * 칠천도)으로 들어가기에 순탐하고 돌아왔다]고 하였다.

23일(병오) 맑음. 이른 아침에 목수를 점호하였는데 1명도 결근이 없었다. 새배에 쓸밀판을 다 만들었다.

24일(정미) 식후부터 큰 바람이 불어치더니 저녁까지 그치지 아니하였다. 저녁에 영등(永登) 정찰부대가 와서 아래되 [적선 5백여척이 23일 밤중에 소진포(蘇秦浦 * 거제도 장목면 송진포리)로 합하여 들어갔는데 그 선봉의 칠천량(漆川梁)에 이르렀다.]고 했다. 밤에 대금산(大金山) 정찰부대가 와서 보고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25일(무신) 큰 비가 종일왔다. 아침 후에 우수사(*이억기)와 함께 적을 토벌할 것을 의논하는 창에 가리포도 오고 경상도 우수사도 와서 의논했다. 들으니 진주(晋州)가 포위당했는데 아무도 감히 진격하지 못한다고 한다. 연일 비가 내려 적들이 물에 막히어 해를 부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면 하늘이 호남을 돕는 것이다. 다행이다. 낙안(樂安)의 군량 1백 30섬 9말을 나누어 주었다. 또 순천의 군량 9백섬을 받아서 찢는다고 한다.

26일(기유) 큰 비가 굉장히 퍼부으며 남풍조차 크게 불었다. 아침 나절에 북병선(伏兵船)이 변고를 아뢰되 [적의 중간배와 작은 배가 1척이 오양역(烏楊驛 * 거제도 사등면 오량리) 앞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다. 호각을 불어 닳을 들게 하고 모든 적도(赤島 * 통영군 화도)에 이르러 진을 쳤다. 순천의 군량 1백 50섬 9말을 받아들여 의능(宜能)의 배에 실었다. 저녁때 김봉만(金鵬萬)이 진주로부터 적의 형세를 정탐하고와서 아뢰되 [무수한 적의 우리들이 진주 동문밖에 합쳤는데 연인 큰비가 아서 물에 막혔으니 독을 내어 싸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 큰물이 적진을 휩쓸려고 하니 적이 밖으로 구원병과 양식을 달길이 없는만큼 만일 큰부대가 협력해서 친다면 대번에 섬멸할 수가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미 양식이 끊어졌으니 우리 군사는 편안히 앉아서 고달픈 적을 맞게 되는 것으로 그 형세가 백전 백승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렇게 도와 주거니 수로(水路)의 적이 비록 5, 6백척을 합해 오더라도 우리 군사를 당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27일(경술) 비가 개다 오다하였다. 오정에 적선 2척이 견내량(見乃梁 * 거제도 사등면 덕호리)에 나타났다고 하므로 전군을 거느리고 나가보니 벌써 도망가 버리고 없었기 때문에 불을도(弗乙島 * 적도 화도)앞 바다에 진을 쳤다. 아침에 순천, 광양을 불려다가 군사문제를 토의하였다. 충청 수사가 그 군관을 시켜 흥양 군량이 떨어졌으니 3섬만 꾸어 달라고 하기에 꾸어 주었다.

28일(신해)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어제 저녁에 강진의 정찰선이 적과 싸운다는 말을 듣

고 전군이 출발하여 견내량(見乃梁)에 이르니 적도들이 우리 군사들을 보고 놀라 달아나는 것이었다. 바람과 조수가 모두 역세라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대로 머물러 밤을 지내고 새벽 2시쯤에야 불을도(弗乙島)에 도착하였다. 이날은 명종(明宗)의 제삿날이다. 종 봉손(奉孫)과 애수(愛守)가 들어와 고향 소식을 자세히 들으니 다행 다행이다. 원수사(*원균)와 우수사(*이억기)가 함께 와서 군사일을 의논하였다.

29일(임자) 맑음. 서풍이 잠깐 일어나더니 청명하게 개었다. 순천, 광양이 보러 왔었다. 어란(於蘭) 만호(*정남수)와 소비포(*이영남)들도 왔다. 종봉손들이 아산(牙山)으로 가는데 홍(洪) 이(李) 두선비에게와 윤선각명문(尹先覺明聞)에게 편지를 써 보냈다.(뒤에 써 부침) 진주가 함락되었다. 황명보(黃明甫) 최경회(崔慶會) 서예원(徐禮元) 김천일(金千鎰) 이종인(李宗仁) 김준민(金俊悶)이 전사하였다고 한다.

[12] 7월

초 1일(계축) 맑음. 인종(仁宗)의 제삿날이다. 밤 기온이 몹시 차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라를 근심하는 생각이 조금도 놓이지 않아 홀로 배뚝밑에 앉았으니 온갖 회포가 일어난다. 선전관(*유형(柳形))이 왔다고 하더니 초저녁에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

초 2일(갑인) 맑음. 날이 저물어 우수사가 내배로 와서 함께 선전관을 대접하였다. 점심후에 헤어져 돌아갔다. 저물게 김득룡(金得龍 *공의 부하)이 와서 진주가 위태하다고 전하였다. 놀라서 비통함을 이길길 없다. 그러나 그럴리가 만무하다. 응당 미친사람이 헛소리를 전한 것이리라. 초저녁에 원연(元) 원식(元植)이 와서 여러가지로 군중의 일들을 이야기하였는데 우스웠다.

초 3일(을묘) 맑음. 적선 두어척이 견내량(見乃梁)을 넘어오고 한편으로는 육지로도 나오니 통분하다. 우리 배가 바다로 나가 뒤를 쫓자 그만 도망쳐 버렸다. 도로 물러 와서 잤다.

초 4일(병진) 맑음. 흉악한 적 수만여명이 죽 벌여서서 기세를 올리니 통분하다. 저녁때 걸망포(乞望浦 *통영군 용남리)로 진을 물리고 잤다.

초 5일(정사) 맑음. 새벽에 정찰부대가 와서 아뢰되, [적선 10여척이 견내량(見乃梁)으로 들어온다]고 하기에 여러배들이 한꺼번에 출발하여 견내량에 이르니, 적선들을 허둥지둥 달아나 버리고 거제땅 적도(赤島)에는 말만 있고 사람이 없으므로 싣고 왔다. 저녁에 변존서(卞存緒)가 분영으로 떠났다. 또 광양으로부터 진주가 함락되었다는 긴급 보고가 왔다. 두치(豆恥)의 북병한 곳에서 성응지(成應社)와 이승서(李承緒)가 보낸 보고다. 저녁에 걸망포(乞望浦)에 이르러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초 6일(무오) 맑음. 아침에 방담(*이순신(李純信))이 보러 왔었다. 소비포(이영남)도 왔었다. 한산도에서 새로 만든 배를 끌어 올일로 중위장(中衛將)이 여러 장수들을 데리고 가서 끌어왔다. 공방(工房) 곽언수(郭彦受)가 행재소(行在所)로부터 들어 왔는데 도승지(都承旨) 심희수(沈喜壽)와 윤자신(尹自新 *지사(知事))과 좌의정(左議政) 윤두수(尹斗壽)에게서 답장이 있고, 윤기헌(尹耆獻)도 안부를 보냈다. 아울러 기별(奇別)도 왔다. 보니 탄식할만한 일들이 많다. 흥양(興陽)이 군량을 실어 왔다.

초 7일(기미) 맑음. 순천, 가리도, 광양들이 와서 군사 일을 의논했다. 가법고 날랜 배 15척을 뽑아 견내량(見乃梁)으로 가서 탐색해 보기로 하여 위장(衛將)이 거느리고 가 보았으나 적의 형적은 없더라고 한다. 사로잡혀 갔던 거제(巨濟)사람 한명을 데리고 와서 적의하던 짓을 자세히 물어더니 [흉악한 적들이 우리 수군의 위세를 보고 달아나려 하더라] 하며 또 말이 [진주가 함락되었으니 전라도까지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이말은 거짓말이다. 우수사가 내 배로 왔기에 함께 이야기했다.

초 8일(경신) 맑음. 남해(南海)로 왕래하는 조봉(趙鵬)에게서 적이 광양을 친다는 말에 광양 사람들이 벌써 관청과 창고를 불질렀다는 말을 들으니 해괴함을 이길 길이 없다. 순천(*권준)과 광양(*어영담)을 곧 보내려다가 굴러온 소문을 믿을 수 없으므로 중지하고 사도(蛇渡) 군관 김봉만(金鵬萬)을 내 보내어 알아보게 하였다.

초 9일(신유) 맑음. 남해가 또 와서 광양, 순천이 벌써 결단났다고 전하므로 광양(어영담), 순천(*권준), 송희립(宋希立), 김득룡(金得龍), 정사립(鄭思立)들을 내어 보냈고 이설(李澌)은 어제 먼저 보냈다. 이 소식이야말로 뼈속들이 저려서 말을 못하겠다. 우수사와 경상수사와 함께 일을 의논하였다. 이날밤 바다에 달은 밝고 티끌 하나 일지 않아 물과 하늘이 한빛

인속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 오는데 홀로 뱃전에 앉았으니 온갖 근심이 가슴을 치민다. 밤중 새로 1시쯤에 본영 탐후선(探候船)이 들어와서 적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은 [왜적들이 아니고 영남 피난민들이 왜적처럼 차리고 광양으로 들어가 여염집을 분탕하는 것이었다]고 하니 우선 다행한 생각을 이길길 없다. 진주 소문도 역시 빈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주일은 그럴리가 만무하다. 닭이 벌써 울었다.

초 10일(임술) 맑음. 김봉만(金鵬萬)이 두치(豆恥 * 광양군 다양면 섬진리)로부터 와서 하는 말이 [광양의 일은 사실이나 다만 왜적 백여명이 도탄(陶灘)으로부터 건너와 광양을 치고 들어왔으나 농들의 한짓을 보면 총도 한방놓은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왜적이면 어찌 총도 한방만 놓을리가 있을 것이라. 경상 우수사와 본도 우수사가 왔다. 원연(元)도 왔다. 저녁에 오수(吳水)가 거제(巨濟) 가참도(加參島 * 가조도(初助島))로부터 와서 하는 말이 [적선은 안팎에 모두 보이지 않는다]하고 또 말하되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쳐 돌아온 자들의 말이 무수한 적들이 창원으로 가더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초저녁에 진을 한산도 끝 세포(細浦)로 옮겼다.

11일(계해) 맑음. 아침에 이상록(李祥祿)이 명령 어긴 여러 장수들에게 전령할 일로 나갔다가 돌아와 아뢰되 [적선 10척이 견내량(見乃梁)에서 내려온다]고 하므로 닳을 올려 바다로 나가니 적선 5, 6척이 벌써 진앞에 이르기로 그대로 추격하였더니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오후 4시쯤에 걸망포(乞望浦)로 돌아와 먹을 물을 길어왔다. 사도(蛇渡) 첨사(* 김완(金浣))가 와서 하는 말이 [두치(豆恥 * 광양) 나루의 적은 헛 소문이요, 광양 사람들이 왜복을 가장해 입고 저희끼리 장난한 것이다.]고 한다. 순천과 낙안은 아주 벌써 결단이 났다고 한다.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다. 어두워 우수성(吳壽成)이 광양으로부터 와서 아뢰되, [광양의 사변은 모두 진주에서 피난온 사람들과 그 고을 사람들이 그런 흉세를 낸 것이었다. 고을 공간은 쓸쓸하고 마을은 텅 비어 종일 돌아다녀야 사람 하나 만나지 못하게 되었는데 순천이 가장 심하고 낙안이 그 다음쯤 된다]고 하였다. 달 아래 우수사의 배를 찾아갔더니 원수사와 직장(直長) 원연(元)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군사일을 의논하다가 헤어졌다.

12일(갑자) 맑음. 식전에 울(蔚)과 송두남(宋斗男)과 우수성이 돌아갔다. 늦게 가리포(* 구사직)와 낙안(* 신호)을 청해다가 일을 의논하고 함께 점심먹고 돌아갔다. 가리포의 군량 진무(鎭撫)가 와서 전하되 [사량(* 통영군 원량면 양지리) 앞 바다에 와서 자는데 왜적이 우리 옷을 갈아입고 우리나라 작은 배를 타고 돌입하여 총을 놓으며 노략질해 가려한다]고 한다. 그래서 곧 가볍고 날랜 배 3척씩을 정해서 합하여 9척을 보내어 잡아 오도록 명령하는 한편 또 각각 3천씩을 정하여 착량(鑿梁 * 통영군 사량면 당도리)로 보내어 오새를 방어하고 오라했다. 고목(告目)이 왔다. 또다시 광양 일은 헛소문이라 하였다.

13일(을축) 맑음. 늦게 본영 탐후선(探候船)이 들어왔다. 광양 두치(豆恥) 등지에는 적의 꼬라지를 볼 수 없다고 한다. 흥양 현감(* 배흥립)이 들어 왔다. 우수사도 왔다. 순천의 거북선 격 군인 경상도 사람의 종태수(太壽)가 도망가다가 잡혀 왔기로 처형했다. 가리포가 보러 왔다. 늦게 흥양원이 와서 두치(豆恥)의 거짓 소문과 장흥 부사 유희선(柳希先)의 겁내던 일들을 전했다. 또 말하기를 [자기 고을산성(* 고흥군 임양면) 창고의 곡식을 빠짐없이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다. 또 행주성(幸州城 * 고양군 지도면)의 대첩(大捷)을 전했다. 초저녁에 우수사 영공(令公)이 청하기에 그의 배로 가 본즉 가리포 영공이 몇가지의 먹음직한 것을 차려 놓았다. 날이 거의 썰녘에 헤어졌다.

14일(병인) 맑더니 늦게 조금 비가 왔다. 한산도 두을포(豆乙浦 * 두억리 개미목)로 진을 옮겼다. 비는 먼지를 적실 정도였다. 몸이 몹시 불편해서 종일 신음하였다. 순천(* 권준)이 들어와서 장흥부사가 본부(本府)의 일을 망령되게 퍼뜨린 것은 형언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함께 점심을 먹고 그대로 머물렀다. 한산도 두을포(豆乙浦)로 진을 옮겼다.

15일(정묘) 맑음. 늦게 사량(蛇梁)이 수토선(搜討船) 여도(呂島)의 김인영과 순천(順天) 지휘선을 타고 다니는 김대복(金大福)이 들어 왔다. 가을 기운이 바다에 들어오니 나그네 회포가 어지럽다. 홀로 배 뚝 밑에 앉았노라니 마음이 몹시 산란하다. 달빛은 뱃전에 비치고 정신도 맑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닭이 울었다.

16일(무진) 아침에 맑다가 늦게 흐리더니 저녁에 소나기가 와서 농사에 흡족하다. 몸이 몹시 불편했다.

17일(기사) 비. 비. 몸이 대단히 불편했다. 광양(* 어영담)이 왔다.

18일(경오) 맑음. 몸이 불편하여 앉았다 누웠다 했다. 정사립(鄭思立)들이 돌아왔다. 우수

사(*이억기)가 보러 왔었다. 신경황(申景潢)이 두치(豆齒)로부터 와서 적의 헛소문임을 전했다.

19일(신미) 맑음. 이경복이 병사에게로 가는 편지를 가지고 떠났다. 순천(*권준)과 이영남(李英男)이 와서 전하기를 전주, 하동, 사천 등지의 저들이 벌써 모두 도망갔다고 한다. 저녁에 광양이 진주에서 피살된 장수들의 명부를 보내 왔기에 보니 비참하고 원통함을 이길 수 없었다.

20일(임신) 맑음. 탐후선(探候船)이 본영으로부터 들어 왔다. 병사의 편지와 명나라 장수의 통첩이 왔는데 그 통첩의 내용이 참으로 괴상하다. 두치의 적이 명나라 군사에게 몰려 도망해 돌아갔다고 했다. 거짓말임을 형언할 길이 없다. 상국(上國) 사람이 이러하니 다른 사람들이야 말할 것이 무엇이랴. 통탄할 일이다. 충청수사와 순천, 방담(*이순신(李純信)) 광양(*어영담) 발포(황정록) 남해(*기효근)가 보러 왔었다. 이해(李)와 윤소인(尹素仁)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21일(계유) 맑음. 경상 우수사(*원균)와 정수사(*걸(傑))가 한꺼번에 와서 적을 토벌할 일을 의논하는데 원수사의하는 말은 극히 흥측하고 말할 수 없는 흥계다. 이러하고서도 일을 같이 한다면 뒷걱정이 없을까? 그 아우 연()이 뒤미처 와서 군량을 얻어 가지고 갔다. 흥양도 왔다가 어두울 녘에 돌아갔다. 초저녁에 오수(吳水)들이 거제(巨濟)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영등포의 적선이 아직도 머물러 있어 제망대로 횡행한다]고 하였다.

22일(갑술) 맑음. 오수가 사로 잡혔다고 도망쳐 온 사람을 실어 오기 위해서 나갔다. 울(蔚)이 들어와서 어머님이 안녕하시고 염(莢)의 병도 차도가 있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23일(을해) 맑음. 울이 돌아갔다. 정수사를 청해다가 점심을 함께 먹었다.

24일(병자) 맑음. 순천, 광양, 흥양이 왔다. 저녁에 방담과 이응화(李應華)가 보러 왔었다. 초저녁에 오수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적이 물러가는 갔으나 장문포(長門浦 * 거제군 장목면 장목리) 적들은 여전하다]고 하였다. 아들 울이 본영에 달았다고 한다.

25일(정축) 맑음. 우수사가 와서 이야기하였다. 조봉(趙鵬)도 와서 체찰사(體察使)의 공문이 경상수사(*원균)에게 왔는데 문책하는 말이 많더라고 한다.

26일(무인) 맑음. 순천, 광양, 방담이 왔다. 우수사(*이억기)도 와서 함께 이야기하였다. 가리포도 같이 왔다.

27일(기묘) 맑음. 우수사 우후(虞候 * 이정충)가 본영으로부터 와서 우도(右道)의 사정을 전하는데 놀랄만한 일들이 많았다. 체찰사에게 가는 편지 공문을 썼다. 경상도 우수영의 영리(營吏)가 체찰사에게 갈 서류 초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였다.

28일(경진) 맑음. 아침에 체찰사에게 가는 편지를 썼다. 경상 우수사(*원균)와 충청 수사(*정걸)와 본도 우수사(*이억기)가 함께 와서 약속하였다. 원수사의 음흉하고 간흉한 것은 형편은 없다. 정여흥(鄭汝興)이 공문과 편지를 가지고 체찰사(體察使)에게로 갔다. 순천, 광양이 보러 왔다가 곧 돌아갔다. 사도(蛇渡) 첨사(*김완)가 북병했을 때 잡은 포작(鮑作 * 보자기) 10명이 왜복을 바꿔 입고 있는 것이 꿈꿈스럽다 하므로 자세히 추궁했더니 어떤 근거가 있는 듯한데 경상 수사가 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족장(足掌)을 10여대씩 때려서 놓아 주었다.

29일(신사) 맑음. 새벽 꿈에 아들을 얻었다. 포로되었던 사나이를 얻을 징조였다. 순천, 광양, 사도, 흥양, 방담들을 불러와서 이야기하였다. 흥양은 학질을 알아서 돌아가고 그 나머지는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하였다. 방담은 북병할 일로 돌아갔다. 본영 탐후인(探候人)이 왔는데 염(莢)의 병이 낫지 않는다 하니 몹시 민망스럽다. 저녁에 보성(*김득광) 소비포(*이영남) 낙안(*신호)이 들어 왔다.

[13] 8월

초 1일(임오) 맑음. 새벽 꿈에 커다란 대궐에 이르렀는데 마치 서울인것같고 기이한 일이 많았다. 영의정이 와서 인사를 하기에 나도 답례를 하였다. 임금의 피난가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뿌려가며 탄식할 적에 형세는 벌써 종식되었다고 말하였다. 서로 일을 의논할 즈음, 좌우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깨었다. 아침에 우후(虞候 * 이몽구(李夢龜))가 보러 왔다가 돌아갔다.

초 2일(계미) 맑음. 아침밥을 먹은 뒤에 마음이 답답하여 닳을 감아 올리고 포구로 나가니 정수사(*걸(傑))가 따라 나오고 순천, 광양이 보러 왔다. 소비포(*이영남)도 왔다. 저녁에 진쳤던 곳으로 돌아왔다. 이홍명(李弘明)이 와서 저녁밥을 함께 먹었다. 어두울뉘에 우수사(*이억기)가 내배로 와서 하는 말이 [방답(*이순신(李純信))이 근친하러 가겠다고 간절히 청하나 여러 장수들을 잠시도 내보낼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하며 또 원수사가 허망한 말을 하며 내게 대해서 줄지 못한 말을 많이 하더라고 전했다. 모두 망령된 짓이라 무슨 상관이 있으랴 염(莚)의 병도 어떤지 모르고 적도 얼른 소탕되지 않고 몸도 괴로와 아침 나절밖으로 나가 바람을 쐐었다. 탐후선(探候船)이 들어 왔는데 염이 아픈데가 곱아서 침으로 찼더니 악즙이 흘러나 왔는데 며칠만 늦었더라면 구할 길이 없었더라고 한다. 큰일날뻔했다. 지금은 조금 생기가 있다 하니 다행한 심정을 어찌 다 말하랴. 의사 정종지(鄭宗之)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

초 3일(갑신) 맑음. 이경복(李景福) 양응원(梁應元)과 영리(營吏) 강기경(姜起敬)들이 들어왔다. 염의 종기를 침으로 찼던 일을 전하는데 새삼스레 놀랐다. 며칠만 더 늦었더라면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초 4일(을유) 맑음. 순천, 광양이 다녀갔다. 저녁때 도원수 군관 이완(李緩)이 삼도(三道)의 적세를 보고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담당 군관과 아전을 잡으러 진으로 왔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초 5일(병술) 조봉(趙鵬) 이홍명(李弘明) 우수사 영공과 우후들이 와서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소비포(*이영남)도 밤에 돌아갔다. 이완이 술에 취해서 내 방에서 머물렀다. 쇠소기를 얻어서 각 배에 나누어 보냈다. 아산(牙山)에서 이예(李禮)가 밤에 왔다.

초 6일(정해) 맑음. 아침에 이완이 송한련(宋漢連) 이어송(李汝送)과 함께 도원수에게도 갔다. 식후에 순천, 광양, 보성, 발포, 이응화(李應華)들이 보러 왔었다. 저녁에 원수사가 오고 이경수(李景受) 영공(令公 *이억기) 정수사도 와서 일을 의논하는 동안 원수사의 언론은 걸핏하면 모순이 생긴다. 어처구니 없다. 저물게 비가 잠깐 시작하다가 이내 그쳤다.

초 7일(무자) 아침엔 맑더니 저물어선 비가 왔다. 농사에 흡족하겠다. 가리포 첨사(*구사직)에 오고 소비포와 이효가(李孝可)도 보러 왔었다. 당포(唐浦) 만호(*하종해(河宗海))가 작은 배찾아 갈일로 왔기에 주어 보내라고 사랑(蛇梁)에게 지시하였다. 가리포 영공은 점심을 나와 함께 먹고 갔다. 저녁에 경상 수사(*원균)의 군관 박치공(朴致公)이 와서 적선이 물러갔다고 전하나 원수사와 그 군관은 본시 헛소리를 잘하니 믿을 수가 없다.

초 8일(기축) 맑음. 식후에 순천, 광양, 방답, 흥양들을 불러 들어 복병에 관한 일을 함께 의논하였다. 충청수사(*정걸)의 전선2척이 들어왔으나 1척은 쓸수없는 것이라고 하고, 김덕인(金德仁)은 그 도의 군관으로서 왔다. 본도(*전라도) 순찰사 진중에 있는 군인 두명이 공문을 가지고 적세를 알려왔다. 우수사가 유포(幽浦)로 가서 경상수사와 만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초 9일(경인) 맑음. 아침에 아들 회()가 들어와서 어머님이 안녕하시다 하고 또 염의 병도 차차 나아가는 것을 알았다. 기쁘고 다행한 일이다. 오후에 우수사(*이억기) 배에 갔더니 충청 영공도 왔다. 경상수사는 복병을 일제히 내어 보내서 복병시키기로 약속해놓고 슬며시 혼자 먼저 보냈다고 한다. 해괴한 일이다.

초 10일(신묘) 맑음. 아침에 방답 탐후선이 들어왔다. 임금의 본부를 전하는 편지와 비변사(備邊使)의 공문과 감사(監司)의 공문이 한꺼번에 왔다. 해남(*위대기(大器))이 이첨사(*순신(純信))와 함께 오고 순천, 광양도 왔다. 우수사가 청하기로 그배로 가니 해남이 술상을 차렸으나 몸이 불편하여 간신히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돌아왔다.

11일(임진) 늦게 소나기가 크게 쏟아지며 바람도 몹시 불더니 오후에는 비가 그쳤으나 바람은 자지 않았다. 몸이 몹시 불편해서 종일토록 누웠다. 일어났다 하였다. 여도(呂島) 만호(*김인영(金仁英))에게 격군을 수색해 오기 위하여 사흘 한하고 갔다 오라고 지시하였다.

12일(계사)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몸이 몹시 불편해서 종일 들어누웠다가 허약한 몸에 땀이 무시로 나서 옷이 흥뻑 젖기때문에 억지로 일어나 앉았다. 늦게 순천과 우수사와 이첨사(*순신(純信))가 와서 종일 장기를 두었다. 가리포도 왔다. 본영의 탐후선이 들어와 어머님이 평안하시다고 한다.

13일(갑오) 본영에서 온 공문에 결재해 보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홀로 배땀아래 앉았노라니 회포가 천만 갈래다. 이경복(李景福)을 장계가지고 가라고 내어 보냈다. 경(庚)의 어미

의 노자는 체자(帖字)로 보내 주었다. 송두남(宋斗男)이 군량미 3백섬과 콩 3백섬을 실어왔다.

14일(을미) 맑음. 방답이 명절 제사 음식들을 갖추어 왔다. 우수사, 충청수사, 순천(* 권준)들이 와서 함께 먹었다.

15일(병신) 맑음. 이날은 추석이다. 우수사(* 이억기) 순천(* 권준) 광양(* 어영담) 낙안(* 신호) 방답(* 이순신) 사도(* 김완) 흥양(* 배흥립) 녹도, 이응화, 이흥명 좌우 도령공(都令公)들이 모두 모여 이야기하였다. 저녁에 회()가 본영으로 갔다.

16일(정유) 맑음. 광양이 명절 음식들을 갖추어 왔다. 우수사, 충청수사, 순천 가리포(* 구사직) 이응화들이 함께 왔다. 아침에 들으니 제만춘(諸萬春)이 일본에서 어제 왔다고 한다.

17일(무술) 맑음. 지휘선을 연기로 그스리기 위하여 좌별도선(左別都船)에 옮겨 뒀다. 늦게 우수사의 배로가니 충청수사도 왔다. 제만춘(諸萬春)을 불러다가 문초해 보니 분한 사연들이 많이 있었다. 종일 의논하고 헤어졌다. 밤들기 전에 지휘선으로 옮겨왔다. 이날 밤, 달은 낮갈고 물결은 비단결같이 회포가 건디기 어려웠다. 새로 만든 배를 진수(進水)했다.

18일(기해) 맑음. 우수사, 정수사와 함께 이야기하였다. 순천 광양도 보러 왔었다. 조봉(趙鵬)이 와서 [박치공(朴致公 * 원균이 군관)이 장계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다.

19일(경자) 맑음. 아침후에 원수사에게 가서 내배로 옮겨 타자고 청하였다. 우수사와 정수사도 왔다. 원연(元)도 같이 이야기하였다. 말 가운데 원수사의 음흉하고 고약한 일이 많으니 그 허무 맹랑한 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원씨 형제가 옮겨 간 후에 천천히 노를 저어 진으로 돌아와 우수사, 정수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20일(신축) 아침후, 순천, 광양, 흥양이 오고 이응화도 왔다. 송희립(宋希立 * 공의 군관)이 순찰사에게 문안경 제만춘을 문초한 공문을 가지고 갔다. 돌산도(突山島) 근처에 이사해 와서 사는 자들도 작당하여 남의 재물을 약탈한 자들을 좌우양편으로 패를 갈라 잡아 오라고 방답과 사도를 내어 보냈다. 저녁에 적량(赤梁) 만호 고여우(高汝友)가 왔다가 밤이 깊어서 돌아갔다.

21일(임인) 맑음.

22일(계묘) 맑음.

23일(갑진) 맑음. 윤간(尹侃)과 조차 이뇌(李)와 해()가 와서 어머니의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전했다. 도 울(蔚)이 학질을 앓는다는 소식도 들었다.

24일(을사) 맑음. 해()가 돌아갔다.

25일(병오) 맑음. 꿈에 적의 형적이 있으므로 새벽에 각도 대장에게 알려서 바깥 바다에 나가 진치게 하였다가 날이 저물어 한산도 안바다(* 통영군 한산면)로 돌아 들어왔다.

26일(정미)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원수사가 왔다. 얼마뒤에 우수사, 정수사가 함께 모였다. 순천, 광양, 가리포는 곧 돌아갔다. 흥양(* 배흥립)이 와서 명절 제사 음식을 대접하는데 원수사가 술을 마시겠다고 하므로 약간 주었더니 잔뜩 취해서 흥악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었다. 해괴하다. 낙안(樂安 * 신호)에게서 일본의 수길(秀吉)이 명나라 황제에게 상서한 초본과 명나라 사람이 그 고에 와서 기록한 것을 보내왔는데 보니 통분함을 이길 수 없다.

27일(무신) 맑음.

28일(기유) 맑음. 원수사가 와서 음흉하고 간혹한 말을 많이 하였다. 심히 해괴하다.

29일(경술) 맑음. 아우 여필(汝弼)고 아들 울(蔚)과 변존서(卞存緒)가 한꺼번에 왔다.

30일(신해) 맑음. 원수사가 또 와서 영등(永登 * 거세군 장목면 구수리)으로 가자고 독촉한다. 참으로 음흉하다. 그가 거느린 25척의 배는 모두 내보내고 다만 7, 8척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 그 마음 쓰고 행사함이 모두 이따위다.